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 지속

개봉동 산후조리원·미소들요양병원·천왕동 남부교도소 등
7일 현재 누적 확진자 모두 688명... 사망자도 6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2021년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서울시 전체 누적 2만명을 넘었고,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688명에 이르는 등 폭증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있다.

7일 현재 구로관내 확진자는 구청직원 2명과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2명, 개봉동 산후조리원 관련 7명,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관련과 가족간 접촉 감염 등 올들어 일주일 사이 70여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8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6명, 473명이 완치 퇴원, 209명이 치료중이다.

구로구는 최근 구청 직원의 확진 판정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본관 2층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 등 총 146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7일 현재 구로구 관내 누적 확진자는 688명으로 치료중 209명, 완치자 473명, 사망 6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국내접촉자 457명,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17일까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구로구 관내 확진자도 688명에 이르는 등 폭증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있다. (사진은 개봉동 소재 A산후조리원. 김지현 개봉1동 시민기자 촬영)

입국자 188명 등 모두 645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개봉동 산후조리원 관련 7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팡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 접촉자 336명, 해외 입국 6명, 기타 2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7일 현재 모두 2만 899명으로 사망자는 213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422명 ▲송파구가 1,188명 ▲관악구 1,061명으로 3개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강남구 977명 ▲동작구 883명 ▲성북구 879명 ▲노원구 874명 ▲서초구 868명 ▲중랑구 854명 ▲

은평구 841명 ▲영등포구 757명 ▲양천구 744명 ▲마포구 729명 ▲동대문구 702명 ▲구로구 688명 ▲강동구 622명 ▲도봉구 611명 ▲서대문구 560명 ▲강북구 525명 ▲광진구 506명 ▲성동구 481명 ▲용산구 438명 ▲종로구 438명 ▲금천구 348명 ▲중구 299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국장·과장·팀장 전보 인사

구의회 사무국장 김기중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성종

구로구는 지난 12월18일 승진 인사에 이어 12월30일에 2021년 1월 1일자로 국장·과장·팀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4급으로 승진한 김기중 전 총무과장이 구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이상돈 전 행정관리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김상재 전 미래발전기획단장이 행정

다음은 과장·팀장 전보 인사(괄호안은 전임부서)
▲대의정책담당관 조희숙

(일자리지원과장) ▲건설관리과장 신영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주차관리과장 권오신(주택과장) ▲총무과장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재순(고척2동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수한(오류2동장)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복지정책과) ▲재무과장 신은옥(문화관광과) ▲주택과장 정경국(도시재생과)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민원여권과) ▲가리봉동장 강장근(감사실) ▲고척2동장 이동수(청소행정과) ▲개봉3동장 이송현(어르신청소년과) ▲오류2동장 이광식(체육진흥과) ▲구로보건소 방역관리팀장 안향섭(지역보건과) ▲구로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장 임민경(위생과) <김유권 기자>

보건소에 '감염병대응팀' 신설

구로구가 1월 1일자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했다. 구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방역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감염병예방팀은 방역관리팀으로 명

칭이 변경되고 감염병대응팀이 새로 추가됐다.

방역관리팀은 만성감염병, 성병·에이즈·결핵 등 기존감염병을 담당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급성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유권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더불어민주당 구로 을 국회의원 윤건영

謹賀新年

2020,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건졌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 '대통령상' 수상

우수사례관리 경진대회 슈퍼비전 분야선 최우수상도

구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구는 "전국 시·도 추천기관 중 선발된 지역유형별 40개 드림스타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운영 시범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구로구 드림스타트는 이번 평가에서 평균 90.39점(전체 평균 75.51점, 대도시자치구 평균 83.70점)을 받았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는 사업운영 평가 체계 및 지표 개선을 통한 사례관리 질적 향상 도모, 사업 효과성 검증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시·도 추천기관 중 40개 드림스타트를 구로구가 속한 대도시자치구(12개)를 비롯해 대도시기초단체(3개), 중소도시(11개), 농산어촌(14개) 등 4개 지역유형으로 구분하고 서류(문서·행복e음)와 현장(인터뷰 등) 점검을 통해 운영 전반을 평가했



구로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시범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다. 9개 영역 25개 지표를 활용했으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슈퍼비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오노이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슈퍼비전 역할극을 통해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표현했다.

구청 소속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 김지원씨(50)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 등 드림스타트 정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상식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진행된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는 지난 28일 온라인(유튜브)으로 열렸다. <채홍길 기자>

"좋은 도시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 모든 정책 주민 최우선"

이성 구청장, 4일 온라인 시무식서 강조

구로구가 지난 4일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성 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해 2021년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성 구청장은 먼저 지난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이성 구청장은 이어 "좋은 도시는 주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도시다. 모든 정책은 주민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도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계획한 사업들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이성 구청장 "우리 삶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과 함께 시작"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이성 구로구청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작했다.

자치분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성 구청장은 김수영 양천구청

<김유권 기자>



장의 지명을 받아 6일 오후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노현송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을 지목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긴급지원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현장중심 의정 활동 코로나19 방역·안전 등 기여 공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극복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회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동웅 의장은 현장중심의 소통의정을 통해 지역의 복지, 안전 등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과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방역 최일선인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했을 뿐 아니라 감염우려로 한철 수급이 어려울 때 자발적으로 한철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활동에 모범을 보이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힘써왔다.

또한, 빗물펌프장, 안양천 등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현장 및 각종 재난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을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살피며 재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

박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료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더욱 더 구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팩스 : 02)830-0905
이메일 : news121@empas.com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육아휴직 부모 모두 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下)

올해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위법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맹견 소유자와 옥외 광고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금소법의 시행으로 향후 소비자 보호 강화와 편익 제고 등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영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지난달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지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진료비 인상 ▲육아휴직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저축성·변액보험 '핵심 설명서'로

현재 저축성·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을 통일하고,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한다.또 현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위법계약 해지시 5년 이내 해지권

아울러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도입·시행되면서 소비자는 위법 계약을 인지한 때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을 포함한 약관을 제공하도록 개정된다.

◆환급형 사라지는 보험상품 변경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사라지는 등의 변화도 생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나온다. 현재 착한실손보다는 보험료가 10%가량 낮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옥외광고물 추락-파손사고 손해 배상

태풍이나 바람이강하게 불면 옥외 설치된 광고물이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대폭 인상된다.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도입된다.

◆출산 지원금 60만+200만, 영아수당 50만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폭 인상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병원 결제가 가능했던 지원금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기존에 없던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시 일시금 200만 원도 신규로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0세부터 12개월 영아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2인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설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육아휴직 부모 모두 휴직시 월 300만원 지원

육아휴직의 범주가 현행 여성, 대기업 근



오는 2월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대폭 상향해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세액공제도 1년간 인건비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병사봉급 2020년 대비 12.5% 인상

병사봉급은 2020년 대비 12.5% 인상되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 강화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 또한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은 3주로 통일하고, 학력과 관계없이 신체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구분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 3배인상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되고, 4월부터는 전국 도심부(주거·상업·공업지역) 차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직원수 30인 이상 회사 유급휴일 확대

직원수가 30인 이상은 1월 1일부터 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1일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 덜 나가도 된다.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족돌봄 등의 사유에 따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사유는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은퇴 준비, 근로자의 학업 등이 있다.

또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사람으로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금과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만수 기자>

대학생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 3배 인상

게 매월 양육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보육료+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존 30만원 지원 폭에서 월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준비 기간을 참작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 0세, 1세 모두 월 50만 원 지급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도 확충되며, 난임 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4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550개소씩 확대된다. 정부는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화 및 시간제 보육을 확충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초등돌봄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 2만7500호 공급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가 2025년까지 공급된다.

로자 위주에서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권리가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사회적 협의를 거쳐 육아 휴직 급여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되는 방안도 신설된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비용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한다. 현재는 월 30만 원이 지원되지만

동구로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 펼쳐

사랑의 쌀 20kg 300포 구로2,4동 소외계층에 전달

동구로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명)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2시 동구로새마을금고에서 구로4동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과 구로4동 민속경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전달한 '2020년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지난해 회원들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쌀을 십시일반 모금한 성품 20kg 300포를 구로4동 약 200포와 구로2동 약100포를 각각 전달했다.

동구로새마을금고는 지난 4월 구로2동 2곳에 통합 이전에 따른 본동지점 업무를 개시했으며, 지난 11월-12월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전통시장(남구로시장, 구로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구로4동 관내 직능단체 김장봉사를 후원하는 등 많은 작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줍도리'의 전통적인 정신을 계승한 운동이다. 지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사



동구로새마을금고는 지난 12월 30일 구로4동 생활보호대상자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펼쳤다.

랑의 줌도리운동에 참여했으며, 새마을금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갑작스런 IMF를 겪으면서 나라경제가 최대의 위기에 빠지고 저소득 계층들이 급증함에 따라 진정한 서민의 금융기관으로 사랑받아 온 새마을금고가 경제위기의 고통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1998년부터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사랑의 줌도리운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9년 3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00년 12월 9

일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완료했다. 이날 행사없이 전달한 것은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뜻 깊은 조출한 전달식 이었다.

이 사랑의 쌀은 결식아동,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실직가장, 북한이탈주민, 결손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골고루 전달 훈훈한 세모가 됐다.

한편 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구로구청에 전달한바 있다.

〈김유권 기자〉

서울시의회 장인홍-이호대의원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수상



지난 12월 24일 구로4동 다목적방에서 열린 '2020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인홍 시의원



이호대 시의원

장인홍 서울시의회 의원(가리봉·구로3·4동), 이호대 의원(구로1·2·5동 신도림동)이 지난 12월 24일 구로4동 다목적방에서 열린 '2020년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민수경 구로4동장, 김정자 바르게살기구로구지회 여성회장, 유광순 강남리즈성형외과 이사장, 윤정희 구로4동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김서영 새마을부녀회 구로4동 회장도 수상했다.

이는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범죄예방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의정, 행정,

봉사대상 3개 분야에서 2020년 한 해 범죄예방과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선정하여 시상한 것이다.

장인홍·이호대 시의원은 관내 LED보안등

설치, 방범용 CCTV 확충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인홍·이호대 시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개인적으로 오늘 수상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구로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첫째아도 출산장려지원금 20만원 지원

1월 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도 30만원서 40만원으로 증액

구로구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

터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20만원이다. 구로구는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아 60만원, 넷째 이후 200만원은 전과 동일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로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2021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로신협
어부바와 함께
따뜻한 내일을
꿈꾸세요!



이사장 신기혁 외 임직원 일동

힘내세요 라는 말 대신
'어부바' 해드릴게요

격려의 말보다 삶에 보탬이 되는
평생 든든한 금융의 힘, 신협



구로신협

본점 02)837-3301 시장지점 02)852-0071 천왕역지점(천왕역 2번출구 앞) 02)861-4767

“공직 33년… 말년에 ‘코로나19’로 정신 없었어요”

‘코로나19 전사’ 정년 퇴임… 구로구청 오광환 지역보건과장

“공직생활 33년 말년에 코로나19로 지금도 정신 없어요.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중인데 제가 1월부터 6개월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어 후배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코로나19가 확산중인 가운데 지난 12월 28일 구로구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본부 총괄반장인 오광환 구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을 9층 비상방역대책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 연말에 공로연수로 사실상 정년 퇴임인데 공직생활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1988년에 강서구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기억이 남는 것은 2016년 ‘공무원의 벼슬’이라는 사무관에 오르기위해 승진시험과 역량평가 승진 두가지를 다해야만 했던 어려움과 지난 2월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방역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구청 동료들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본부 총괄반장인 오광환 구로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이 9층 비상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현재 구로관내에서 확진자가 서울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도 된거와 같이 지난 3월초 처음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모 보험사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것을 비롯, 만민교회, 구로동 모 아파트와 최근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어 걱정중이다.

- 퇴임후 ‘인생 2모작’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우선 내년 6월까지의 공로연수 기간으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갖고자며, 이후에는 텃밭가꾸기를 통한 농사도 좀 배우고, 늦게나마 시문학에 등단한 거와 관련해서 문인협회 활동과 시와 수필을 많이 쓰고 싶고,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그동안 배웠던 중국어를 활용하여 중국여행은 물론, 지인이 운영하는 중국에 투자된 무역회사에서 제2 인생을 살아 보고자 한다.

- 동료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코로나가 또다시 이렇게 엄혹한데 퇴직하게 되어 현재 고생하고 있는 대책본부 후배 동료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며,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후배 동료들에게 감사한다. 먼저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며 인터뷰를 마쳤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억만 년의 역사가 흘렀다고 해도 내가 살아 있는 기간만은 우주가 존

재할 뿐이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나는 내 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

지난 해는 유사(遺事)에 없는 코로나19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힘든 한 해를 보

또 한 해를 보내면서 ㉠

났다. 지난 해에 힘든 해를 보냈다고 해서 올해도 힘든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해의 코로나19 경험으로 해서 백신이 발명이 되고, 올해는 백신이 보급화 돼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태고 지구가 존재할 때 부터 세월은 꾸준히 역사를 쌓아왔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사의 한 기간에 살다가 가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하며 살 이유가 없다.

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작고한 모재벌 회장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을 것이다.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하지 못한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천문학적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달디 단 사과를 먹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내 가슴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본지 회장>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 ‘지방의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사진)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

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자치분권과 민생정책 실현이 반영된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으로부터 공모 받은 300여건의 조례 중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수상작들이 선정

됐다. 시상식은 지난 12월 22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상자 인원을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조미향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서울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구로구 관내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조 의원은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전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이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조 의원은 “단원들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며 “새해에도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감 소감을 밝혔다. <김유권 기자>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구로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상' 수상

2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 등 4개 항목 평가

인센티브 등 15억 8,000만원 예산 확보

구로구가 서울시 주관 교통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시상금과 징수교부금 등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교통수요관리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 교통수요 중점관리, 특수시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로구는 평가 항목 전반에 걸

쳐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특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민간기업의 승용차부제 참여, 주차장 유료화 등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구로구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99.1%까지 제고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려를 통해 지난해 부과액의 97.3%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 압류율을 97.8%까지 높여 세수증대와 조세형평 실현에 힘썼다.

관내 주차장에 나눔카 59대를 배치하는 등 공유차량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신성호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녹색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산책로 위치정보 제공 '구로행복길' 서비스

푸른수목원, 거리공원 등 지역 명소 9곳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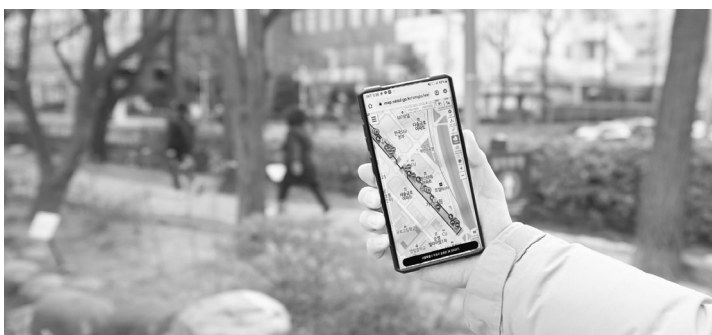
구로구가 지역 내 산책로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산책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PC 등으로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책 코스와 운동기구, 쉼터, 화장실, 음수대, 휴먼지킴이 등 각종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신고를 위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종합병원 응급센터 등의 연락처도 제공되며, 시설물 파손에 대한 불편 신고도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은 ▲개웅산둘레길 ▲거리공원 ▲고척근린공원 ▲연



구로구는 산책로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PC 등으로 제공하는 '구로행복길'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근린공원 ▲자철공원 ▲천왕근린공원 ▲푸른수목원 ▲항동철길 ▲천왕산가족캠핑장 등 지역 명소 9곳(시설물 355개)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에 접속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

산책로 인근 시설물에 대한 위성측량(GNSS)을 실시하고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에 관련 정보도 등록했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려해 '구로행복길'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2월까지 임시주거시설 거주자, 공공급 체납 가정 등 대상 조사

구로구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난히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새해 2월까지 위기가정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숙박업소, 고시원, 찜질방 등 임시주거시설 268개소를 대상으로 주거 취약가구 전수 조사를 펼치고 있다.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층상담을 진행한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위기에 상가구와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 세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공공급·사회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휴·폐업 등 사회적 지표를 활용해 잠재적인 위기가정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한 위기가정에는 공적지원부터 민간자원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공한다. 돌봄SOS센터와 협력해 긴급 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구로구는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우리동네주무관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섭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겨울철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다"며 "홀로 고통 받는 주민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2020년 의장표창 수여식'

장정순 국민소통분과위원장·조병곤 감사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 소속의 장정순 국민소통분과위원장과 조병곤 감사가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

구로구협의회(회장 이학만)는 지난 12월 29일 협의회사무실(구청 5층)에서 '2020년 의장표창 수여식'을 갖고 두 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장표창 수여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현정은 서울지역 부의장이 표창을 수여해야 하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학만 협의회장이 수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는 우수협의회로서 1986년, 1997년, 2011년, 2015년도에 의장 단체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채홍길 기자>

학교 앞 교통 사각지대 '스마트 알림이' 설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등서 CCTV 영상 패널 표출 상황 알려줘

초등학교 인근 등 15곳 마련

구로구가 '스마트 알림이'를 활용해 학교 앞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에 강화한다.

구로구는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알림이' 설치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스마트 알림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사각지대 등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CCTV 영상을 패널로 표출해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알려준다.

구로구는 최근 높은 건물과 벽으로 가려져 위험했던 오류초(고척로8길·10길) 인근에 회전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했다. 경사길이 있는 영일초(구로동로7나길) 인근에는 경사로 사각지대 알림이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차로 알림이(알림패널)'도 설치했다. 교차로 알림이는 보행자에게 LED표지판과 음성을 통해 차량 접근을 알리고 운전자에게는 실시간 주행 속도를 알

림패널에 표출해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지난 12월 개웅초(개봉로11길)·영서초(도림로20길)·사랑유치원(구로중앙로40길) 등 3곳에 마련했다. 지난해 초에는 구일초·오류남초·동구로초·덕의초 등 4곳, 2018년에는 고척중·구일중 인근에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한 바 있다.

구로구는 횡단보도 우회전 진입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인 '스마트 우회전 알림이'도 확대 구축했다. 지난해 2월 경인로 59길 7 인근 삼거리 교차로 설치에 이어 11월에 미래초(새말로



구로구가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알림이' 설치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영일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스마트 알림이>

73)·고산초(중앙로6)·세곡초(고척로114) 3곳에 추가 설치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신도림초(신도림동 316-6) 인근에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도 구

축한 바 있다. 운전자가 과속·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해당 차량 모습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보행자가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경고 음성을 송출한다.

구는 지금까지 총 15곳에 스마트 알림이를 설치했으며, 새해에도 2곳을 선정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며 "빈틈없는 교통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개봉동 산후조리원 관련 13명 확진

산모 3명·신생아 2명·직원 7명·가족 1명 확진

서울시 “산후조리원 117곳 전수검사 결과 2명 확진”

개봉동 소재 A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 13명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6일 구로구에 따르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A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지난달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입소자 전원과 지난달 21일 이후 퇴사자,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70여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이중 구민은 7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은 이미 퇴원한 상태였다.

산후조리원 확진자 13명은 산모 3명, 신생아 2명, 직원 7명, 가족 1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시설내 관계자가 증상 이후 근무 하면서 산후조리원 내 입소자나 동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리원에서는 보통 2-3주의 긴 기간을 머무는데다, 퇴원 후 접촉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자의 기간과 범위를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구로구 산후조

리원’의 집단 감염 발생 이후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작구, 영등포구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서울지역 내 산후조리원 117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56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나타났다. 이번에 검사 받은 대상자는 서울지역 내 전체 종사자의 약 9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2월 말부터 백신 접종” 의료기관 종사자·고령자 우선

정부 “명단 파악-사전 준비 진행 중”
식약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

정부는 방역당국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2월 말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위와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해 “2월 말부터 아마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가 4일 허가신청을 했고 2월 중 국내 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접종 일정을 현재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접종 대상자, 접종기



관, 실시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은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80일 넘게 걸리는 허가심사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확진자 모두 전원조치

“확진 안된 61명은 간호인력 지원해 관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 확진자는 전원 조치하고 확진 안된 61명은 간호인력 18명이 추가 지원해 관리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개봉동 미소들요양병원에 남아있던 확진자 37명 전원 조

치 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누적 확진자

215명이 나온 미소들요양병원과 관련해 “남아 있는 확진자 37명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6일 “확진되지 않은 61명은 간호 인력 18명을 추가 지원해 해당 병원에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구로구는 해당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4,922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14명, 음성 4,695명이 나왔다.

정부는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채홍길 기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 10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

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한만수 기자>

동부구치소→천왕동 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20명 확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가운데 20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구로구에 따르면 6일까지 서울남부교도소 내 수용자 중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85명 가운데 일부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과밀 수용 상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85명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김유권 기자>

서울 인구 500명 중 1명 확진... 발생률 종로>강서>중구

서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500명 중 1명을 넘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전체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수)은

0.2018%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에서 최근 4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그 이전 10개월 여간 발생한 수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서울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0.1%를 넘은게 지난해 12월 5일이었다. 그로부터 4주가 채 안

되는 27일 만에 2배가 된 셈이다.

자치구별 코로나19 발생률은 종로구가 0.29%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중구(각 0.23%) 등 순이었다. 발생률이 낮아 방역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강동구(0.13%), 광진구·금천구(각 0.14%) 순이었다. 이들 자치구는 종로구의 절반 미만이었다.

<채홍길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탁/사육판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개봉동 송재만 박사 ‘건강을 살리는 숯’ 출간

숯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알기쉽게 해설

관내 개봉동에 사는 송재만 박사가 ‘건강을 살리는 숯’이라는 건강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에서 오랫동안 이용되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을 준 숯에 대한 모든 것을 실은 책이다. 숯은 동서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우리 음식의 가장 중심인 장을 만들 때도 숯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금줄에 숯을 엮기도 하였고, 중요한 곡식 창고인 판에도 숯을 놓았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날 때 숯을 곱게 빵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셨고, 『동의보감』에도 백초상이나 송인묵을 비롯해서 각종 숯을 약으로 사용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집을 지을 때, 우물을 팔 때, 농작물을 재배할 때에도 숯은 요긴하게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숯의 유용함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 이 책은 총 5장에 걸쳐 숯과 숯가루의 원리와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숯은 여과와 정화 △습도 조절 △탈취 △항균 △해독 △방부 효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

게 하는 것이 숯의 다공체이다. 이 다공체에 대한 설명과 여러 효과를 내는 원리를 쉽게 설명했다.

또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고 노폐물이 빠지게 하는 원적외선, 전자파를 중화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음이온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숯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6장과 7장에서는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목초액과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솔잎의 효능과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송재만 박사는 경북대학교와 서정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사)한국정책포럼보건의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행복한 만남’ ‘솔잎과 소나무’ ‘건강을 살리는 숯’ 등 다수가 있다. <도서출판 조은/ 가격25,000> <한만수 기자>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86호 발간

시·수필 신인문학상 당선작, 심사평·소감 등 실려



구로지역 관내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 (발행인 김옥자)이 지난 1일 2021년 1-2월호인 통권 제86호를 발행했다.

이번 86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辛丑年을 맞으며’와 이재철 문학광장 홍보위원장의 ‘2021년 새해를 열며’ 주제로 권두언이 실렸다.

1, 2월 여는시는 손해일 시인의 ‘정보리 발에 오는 봄’과 ‘이달의 수필가’엔 오옥단 씨의 ‘너도

여성 이었구나’의 1편과, 이종명 씨의 ‘작은 엄마’의 1편이 게재됐다.

신작시로는 곽혜숙, 김선균, 김영숙, 송순옥, 이규봉, 이재철, 최경순 시인 등 27명의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 됐다.

또 신작수필엔 김만수, 기라성, 장광현 수필가 등 5인의 작품이 실렸고, 신작 소설에는 고승우 작가의 작품이, 신작 동화엔 김동미

초대시

돈키호테

시인 이 지 유

사악한 무리들을 쳐부수려 떠나는 돈키호테
높은 로시난테를 타고 떠나지만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



브랜드 옷을 입고도

공주를 상상조차 못하는

샐러리맨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산초인 줄은 꿈에도 모른다

풍차는 일년삼백육십오일

바람만 불면 용감하게 돌아가는데

사진을 그림처럼 보고

그림을 사진처럼 보려하는

현대인들의 하루는 무기력하기만 하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은

산초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는데

도심을 걸어가는 걸음들은

무쇠구두를 신고 노예처럼 걷는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 문예창작실기지도사 1급
- <한국문예> 시 '5월' 발표
- 논술학원 원장

작가의 작품이 게재됐다.

또한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 부문에 김정민씨, 이왕중씨, 이정수씨, 이현순씨(시조)가, 그리고 수필 부문에 엄혜인씨, 오동환씨의 작품 및 당선 소감, 심사평이 자

세하게 실렸다.

특집으로 표천길 시인의 ‘문학광장’ 김옥자 발행인의 ‘2020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상’ 시상식 후기가 4페이지에 걸쳐 화보와 함께 실렸다. <채홍길 기자>



2021년 辛丑年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의 모습이

풍요롭고 조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오류1동 새마을금고**

본점 02)2614-2685, 수궁지점 02)2618-2167, 온수지점 02)2613-6465
구리지점 02)2618-2457, 온수연립지점 02)2681-1924